

서울 당서 초등학교 2학년 3반 2번
김태훈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햇님이 쨍쨍

제목 : 골프

오늘 아바랑 나랑 골프를 치러 갔다.
조금 늦게 와서 자리가 없었다. 그래서
30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나는
LA 다저스 VS 마이네이츠 야구경기를 하
는걸 봤다. 1시간을 보고, 골프를 치
다. 먼저 드라이버를 쳤다. 오랜만에 쳐
서 잘 안쳐줬다. 그래서 아이언
번으로 쳤다. 아이언도 오랜만에 쳐
서 잘 안쳐줬다. 그래도 계속 잘
될때까지 캐디를 부르면서
쳤다. 보통 이었다. 아바가 일요일마다
다 골 치라고 해서 일요일마다
골프를 치러 올거야. 그 다음 아바
가 날프 골프를 잘 치라고, 바람
개비 골프 채를 사 주겠다고 기
분이 좋았다. 그리고 난 나중에 골
프도 잘 치게 될 거야.